

# GLOBAL DEFENSE NEWS



기 동 터키, 시리아 국경 지역에 개량형 M60TM 전차 운용

합 정 호주 오스탈사, 필리핀 해군 연안 경비함 제안 내용 공개

유도·방호 GDLS사, 기동형 단거리 방공 시제품 전시

전재인용 시 출처(국방기술품질원)를  
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은 <Global Defense News>, <국방과학기술정보>誌로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● 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● 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기동

# 터키, 시리아 국경 지역에 개량형 M60TM 전차 운용

■ 터키가 '평화의 샘(Peace Spring)' 작전의 일환으로 시리아 국경 지역에 플라트(Pulat) 능동 방호 장치(APS)를 장착한 개량형 M60TM 주력 전차(MBT)를 운용하는 사진이 공개됨.

※ APS: Active Protection Systems      ※ MBT: Main Battle Tank

- M60TM 성능개량 전차는 2018년 터키 지상군에 도입

↳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리아 국경 내·외부로 기동하는 차량 장면 일부가 보도되었으나, 이번 사진은 전투에 투입되는 전차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

- M60TM 전차는 상이한 2개의 표준으로 성능 개량된 전차로서 둘 모두 원격조종 무기장치가 장착되어 있고, 포탑 전방 및 후방에 설치된 연막탄 발사기 뒤에 레이저 경보 수신기가 장착

↳ M60TM 전차 중 일부는 차체에 플라트 하드 킬(hard-kill) APS로 보이는 요소가 장착되어 있고, 이 중 1개 모듈이 우측 배기관 후방에 설치되어 있으며, 또 1개의 모듈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기륜 사이에 설치

• M60TM 전차는 터키 군에 운용되고 있는 전차 중 기술적으로 최첨단화된 MBT로서 2017년 시리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'유프라테스 방패(Euphrates Shield)작전' 기간 중 습득한 교훈을 반영하여 성능개량 됨. '유프라테스 방패' 작전 기간 중 터키는 대전차 유도무기공격을 받아 전차 몇 대를 상실하였음.



M60TM 주력 전차 운용 장면

## GLOBAL DEFENSE NEWS

함정

# 호주 오스탈사, 필리핀 해군 연안 경비함 제안 내용 공개

## ■ 호주 시드니 Pacific 2019 국제해양박람회에서 오스탈사가 필리핀 해군의 연안 경비함 획득사업을 위해 제안한 내용을 공개함.

- 필리핀은 연안 경비함 1차 조달분량으로 6척을 필요로 하며, 획득예산 300억 PHP(5억 7,700만 달러)를 승인
  - 연안 경비함 획득사업은 필리핀 군현대화사업 해군 파트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사업 중 하나임.
- 제안한 함정의 설계는 케이프급 경비함의 설계에 기반하며, 전장 83.4m, 함폭 13.3m, 흘수 4m
- 연안 경비함은 C280-16 엔진 2대를 탑재하며 LAF 5465 SISO 기어박스를 통해 고정 피치 프로펠러 2대를 구동
- 최대연속정격출력의 85%에서 22kt 최고속도를 발휘할 수 있고, 12kt 속도에서 3,500해리 이상 항해 가능
- 승조원 정원 52명, 특수임무수행요원 20명 수용 가능
- 주요 무기체계는 주포 위치에 설치된 76mm 함포 1문, 연도 각 측면에 설치된 25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2대, 선체 중앙부에 설치된 12.7mm 기관총 2정
- 함정 비행갑판에는 AW159 헬기를 포함한 10톤 중량의 헬기 착륙이 가능하며, 무인항공체계 운용을 위해 구조 변경 가능
  - ↳ 또한 능동 및 수동식 예인 음탐기 체계를 장비할 수 있어 제한적인 대잠전 능력 보유



연안 경비함 획득사업을 위해 제안한 함정 모형

## GLOBAL DEFENSE NEWS

유도·방호

# GDLS사, 기동형 단거리 방공 시제품 전시

## ■ GDLS사가 AUSA 2019 전시회에서 기동형 단거리 방공(IM-SHORAD) 시제품을 전시함.

### ※ IM-SHORAD: Interim Maneuver Short-Range Air Defence

- GDLS사는 10월 1일, 미 육군에 첫 번째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한 이후 현재까지 육군에 시제품 총 4대를 납품
  - ↳ 다섯 번째 IM-SHORAD 시제품을 12월에 납품하고 2020년 11월 시제품 4대를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며, 육군이 인수하는 시제품은 총 9대
- GDLS사가 생산한 스트라이커 A1 차륜형 전투차량에 기반을 둔 IM-SHORAD는 공중 및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RADA사의 다기능 반구형 레이더(MHR)와 레오나르도 DRS사가 제작한 무기 패키지를 사용

### ※ MHR: Multi-mission Hemispheric Radar

- ↳ 이 무기 패키지에는 공중 또는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을 장착한 무그사의 가변구조형 통합무기 플랫폼, 경장갑 공중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 4발, XM914 30mm 부시마스터 체인 건 1정, 7.62mm 기관총 1정, 전자전패키지 1대, L3 웨스캠사의 MX-GCS 조준체계가 포함
- IM-SHORAD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SHORAD를 배치하는 중간 과정으로 간주
- 미 육군이 추진하는 IM-SHORAD사업은 육군이 정상적인 연방획득규정 범위 밖의 기타 거래 권한구조를 사용하고, 미 의회가 승인한 더욱 새로운 신속 시제품 제작규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개념단계에서 계약단계로 이동함.

## GLOBAL DEFENSE NEWS